

#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고진경

승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Jinkyung Goh(gjksyr@mail.kcu.ac)

### 요약

본 연구는 자존감의 특정 영역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 자존감 평가 영역 척도, 공격성 질문지, 정서조절곤란 질문지가 사용되었고 총 287명의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인의 구성요인별로 영향력을 검증하여 유의한 변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자존감의 특정 영역 중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긍정적 성품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고, 정서조절곤란 중 충동통제곤란, 명료성의 부족, 전략적 접근 제한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정서조절곤란이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충동통제곤란은 긍정적 성품과 분노감을, 명료성 부족은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을 완전 매개하였고, 전략적 접근제한은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적대감을 부분 매개하였다.

■ 중심어 : 자존감 하위영역 | 공격성 | 정서조절곤란 | 완전매개 | 부분매개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fic domains of self-esteem and aggression. Thre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287 individual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nd 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he result shows that social and objective ability and positive character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aggression, while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lack of emotional clarity and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largely contributed to aggression. Moreover, emotional dysregulation functioned as a significant mediator variable for explaining the link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have fully mediated positive personality and hostility,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has partially mediated social and objective ability and hostility, respectively.

■ keyword : Specific Domains of Self-esteem | Aggression | Emotion Dysregulation | Full Mediation | Partial Mediation |

접수일자 : 2017년 09월 27일

수정일자 : 2017년 10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0월 30일

교신저자 : 고진경, e-mail : gjksyr@mail.kcu.ac

## I 서론

공격성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일부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공격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크게 증가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공격성은 타인에게 향한 경우 범죄와 폭력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자신에게 향한 경우 자해나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1]. 공격성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가 자존감인데, 그동안 연구자들은 낮은 자존감이 공격성을 유발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이를 일관성 있게 지지하지 않았다[2][3]. 오히려 경험적 증거들은 공격성과 연관이 있는 것은 높은 자존감이라는 보고가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과 공격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4-6]. 자존감과 공격성관계의 비일관적인 결과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로 자존감을 전반적 자존감과 같이 단일요인으로 간주하거나 자존감 총점으로 다루었고,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관여하는 다른 심리적 기제의 영향을 간과한 것과 연관이 있다[7].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전반적 자존감의 높고 낮음과 자기애와 같은 심리적 변인들을 연계하여 자존감의 차원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공격성의 양상을 연구하였다[8][9]. 그러나 전반적 자존감은 개인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영역에 따른 자존감의 측면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차원 간의 상쇄효과를 통제하여 자존감의 영역에 따른 공격성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자존감 및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 부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공격성을 나타냄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진 정서조절곤란이[10]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존감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를 나타내는 말로 개인의 주관적인 삶을 이해하고 정

신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자존감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11]. 이후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 자존감과 같은 단일요인이 아닌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존감은 크게 두 요인-가치감과 유능감-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12]. 가치감 요인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수용되는가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 유능감 요인은 현실에서의 다양한 과제를 스스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13]. 개인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존재라는 경험과 삶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경험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근거가 되며 자존감 형성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14]. 따라서 전반적 자존감보다는 개인의 자존감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개인의 자존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자존감의 근거영역을 반영한 검사인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척도를 통해 개인의 자존감을 4개의 하위영역-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은 학업, 직업, 경제력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역량을 말하며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지위 및 타인의 인정, 성취를 보이는 것이 개인의 자존감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영역임을 의미한다. 긍정적 성품은 자신과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한 나 자신의 긍정적 태도에 관한 영역으로 노력, 성실성, 가치관, 윤리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대인관계는 친구관계, 공동체 내 관계, 이성, 연인관계 등 타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인정받고, 지지, 격려받고자 하는 관계적 측면이며, 가족은 가족 간의 사랑, 가정생활 분위기 등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4개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은 유능감을,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은 가치감을 반영한다[13].

### 2. 공격성

Bandura는 관찰 가능한 행동과 지각된 의도, 행동의

결과, 사회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공격적이라고 판단되는 행동으로 공격성을 정의하였고[16], Berkowitz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위로 정의하였다[17][18]. 또한 Buss와 Perry는 공격성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행동으로 정의하였고[19], Crick과 Grotperter는 상대방의 가치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공격성을 정의하였다[20]. 결국 공격성은 타인이나 어떤 대상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외현적 행동과 공격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의 다양한 정의만큼 공격성을 구성하는 하위 유형 또한 다양한데, 공격성의 표출유형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공격대상에 따라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거나[21],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행동을 포함하는 외현적 공격성과 또래관계를 조종하거나 손상을 가함으로써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20][22]. 이러한 공격성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정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공격성 질문지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공격성에는 세 가지 구분된 차원-정서, 행동, 인지-이 있음이 밝혀졌고, 세 가지 구분된 차원은 각기 분노감, 공격행동, 적대감으로 정의되었다[17][19][23]. 분노감은 가벼운 수준인 성가심이나 짜증으로부터 격노나 격분과 같은 강한 흥분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나타낸다고 보았고, 적대감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타인이나 세상을 보는 태도로 공격적인 행동을 동기화시키며, 공격행동은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해를 입히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말한다[19].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분노감, 적대감, 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행동으로 세분하여 정의하였다.

### 3. 정서조절곤란

정서조절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며 언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과정으로[24], 정서

경험과 표현을 유지하고 때로는 억제하기도 하고 고양시키기도 한다. 적응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인 정서조절은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수정하는데 관계되는 내적, 외적 과정으로 정의되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다[25].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적 자극을 경험하고 반응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부적응적 방식을 반영한다. 정서조절곤란 또한 정서인식, 정서이해, 그리고 정서수용의 곤란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스트레스에 처하게 되면 충동적 행동억제의 어려움, 목표지향적인 행동수행의 어려움과 맥락에 적합한 조절전략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25]. 최근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정서조절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인 반면,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많은 행동 문제 및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인 정서조절곤란을 정서의 자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일 조절하고 개인이 바라는 목표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 개별적인 목표와 상황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서적 반응들을 조절하고 상황적으로 적절한 정서조절전략들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 4. 자존감과 공격성과 정서조절곤란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관련하여 오랜 동안 낮은 자존감이 공격성과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이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일관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오히려 많은 연구결과들은 높은 자존감이 공격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공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실패와 비판에 대해 역기능적이고 비합리적인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2].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의 비일관적인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몇 가지 이유들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자존감과 공격성이 개념화된 방식의 문제일 수 있다[7]. 자존감과 공격성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존감을 전반적 자존감이라는 단일요인으로 간주하였으나, 근래에 들어 자존감은 단일요인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특정 영역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영역별 자존감(domain-specific)으로 정의된다[12]. 자존감의 특정 영역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격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므로 자존감을 전반적 자존감과 같은 단일요인의 측정치로 집적시키기보다는 자존감의 특정영역에 따른 공격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7].

둘째,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심리적 변인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켜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며[27], Robertson 등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로 인해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보았다[26]. 자존감과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정서적 평가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쉽게 긍정적인 기분을 가질 수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긍정적인 기분을 쉽게 약화시키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려는 동기가 더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정서조절곤란이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서조절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광범위하게 연구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 공격성의 선행요인으로서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cott 등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대학생의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고[28],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갖고 있을수록 공격적인 행동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Alexithymia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정서인식 수준이 공격적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29], 자신의 정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수용성 역시 증가된 공격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자존감을 단일요인이 아닌 특정영역으로 구분하여 특정 영역의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서조절곤란이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 특정 영역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295명으로 불성실한 응답자 8명의 자료를 제외한 287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성 50명(17.4%), 여성 237명(82.6%)이었고, 연령분포는 20대 33명(11.5%), 30대 67명(23.3%), 40대 124명(43.2%), 50대 57명(19.9%), 60대 6명 (2.1%)이었다. 최종학력 분포는 고졸 95명(33.1%), 전문대졸 91명(31.7%), 대졸 68명(23.7%), 대학원졸 33명(11.5%)이었다. 직업 분포는 학생 27명(9.4%), 전업주부 77명(26.8%), 회사원 71명(24.7%), 자영업 19명(6.6%), 전문직 93명(32.4%)이었다.

#### 2. 측정도구

##### 2.1 한국형 자존감 평가 영역 척도(Domains of Self-esteem Appraisal Scale for Koreans: DoSEAS-K)

자존감 평가 영역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는 이동귀 등이 개발한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를 사용하였다[31]. 이 척도는 한국인이 자존감을 평가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과 해당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며, 하위영역은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15문항, ‘긍정적 성품’ 7문항, ‘대인관계’ 4문항, ‘가족’ 3문항 등 4개의 하위영역, 총 58문항(중요도 29문항, 만족도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보다는 만족도가 실제 경험하는 자존감을 반영한다고 보아 만족도 29문항만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할 때 각 문항의 요소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Likert형의 5점 척도(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 = 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한다. 이동귀 등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90, 긍정적 성품 .86, 대인관계 .80, 가족 .81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존감의 각 평가 영역 만족도의 내적 합치도는 .91, .87, .82, .89였다.

2.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Buss와 Perry가 개발하고 서수균과 권석만이 번안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8][19]. 신체적 공격행동 9문항, 언어적 공격행동 5문항, 분노감 5문항, 적대감 8문항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형의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서수균 등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신체적 공격행동 .74, 언어적 공격행동 .73, 분노감 .67, 적대감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공격성 .65, 언어적 공격행동 .78, 분노감 .69, 적대감 .74로 나타났다[8].

2.3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K-DERS)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ratz와 Roemer가 개발하고 조용래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를 사용하였다[32]. K-DERS는 6개의 하위척도인 충동통제곤란(7문항), 정서의 주의/자각 부족(8문항), 정서의 비수용성(7문항), 정서적 명료성 부족(3문항),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6문항),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4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Likert형의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조용래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충동통제곤란 .89,

정서의 주의/자각 부족 .83, 정서의 비수용성 .87, 정서적 명료성 부족 .76,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79,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8, .86, .88, .77, .79, .86이었다.

III.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 자존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인의 구성요인별로 영향력을 검증하여 유의한 변인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유의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31].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정규성 가정 충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구성요인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존감	사회적, 객관적 능력	15-75	47.72	8.07	-0.04	-0.46
	긍정적 성품	7-35	25.85	4.12	-0.39	0.39
	대인관계	4-20	13.88	2.59	-0.38	0.49
	가족	3-15	11.45	2.22	-0.39	0.12
정서 조절 곤란	충동통제곤란	5-25	8.28	3.43	1.50	2.48
	정서에 대한 주의와 지각 부족	7-35	16.92	5.30	0.52	-0.17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8-40	14.85	5.66	1.14	1.33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3-15	4.76	1.88	1.35	2.18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6-30	11.35	3.96	1.16	1.31
	목표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움	4-20	8.67	3.49	0.93	0.53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9-45	14.69	3.54	0.65	0.19
	언어적 공격성	5-25	10.84	3.18	1.02	1.56
	분노감	5-25	10.91	3.14	0.49	0.75
	적대감	8-40	14.44	3.91	0.90	1.02

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왜도 및 첨도 산출 결과, 왜도는 모두 2 미만, 첨도는 모두 4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회귀분석 등의 모수통계를 시행하는데 자료의 분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존감은 정서조절곤란 및 분노감, 적대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조절곤란 변인들은 공격성의 신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언어적 공격성과 일부 변인들 (정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 조절전략접근 제한)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594**	1												
3	.581**	.499**	1											
4	.435**	.354**	.545**	1										
5	-.292**	-.504**	-.336**	-.283**	1									
6	-.214**	-.330**	-.194**	-.147**	.273**	1								
7	-.266**	-.386**	-.220**	-.157**	.594**	.247**	1							
8	-.306**	-.418**	-.242**	-.201**	.593**	.460**	.519**	1						
9	-.401**	-.532**	-.394**	-.317**	.593**	.353**	.605**	.521**	1					
10	-.331**	-.477**	-.258**	-.193**	.739**	.247**	.610**	.519**	.697**	1				
11	-.081	-.129	-.100	-.091	.358**	.133	.167**	.253**	.269**	.277**	1			
12	.020	.011	-.042	-.018	.236**	-.158**	-.016	.078	-.001	.162**	.253**	1		
13	-.249**	-.404**	-.255**	-.218**	.666**	.200**	.370**	.421**	.350**	.503**	.425**	.407**	1	
14	-.383**	-.373**	-.333**	-.198**	.422**	.218**	.350**	.408**	.421**	.417**	.413**	.246**	.455**	1

\*  $p < .05$ , \*\*  $p < .01$

1.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2. 긍정적 성품 3. 대인관계 4. 가족 5.충동조절곤란 6. 정서의 주의/자각 부족 7. 정서비수용성 8. 정서적 명료성 부족 9. 정서조절전략접근 제한 10.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11. 신체적 공격성 12. 언어적 공격성 13. 분노감 14. 적대감

표 3.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	p	F	R <sup>2</sup>
신체적 공격성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011	.024	0.301	.764	1.424	.020
	긍정적 성품	-0.095	-.110	-1.462	.145		
	대인관계	-0.050	-.036	-0.450	.653		
언어적 공격성	가족	-0.068	-.043	-0.598	.550	0.351	.005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023	.059	0.718	.473		
	긍정적 성품	0.015	.019	0.254	.800		
분노감	대인관계	-0.102	-.083	-1.022	.308	14.514***	.171
	가족	-0.008	-.005	-0.074	.941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012	.031	0.421	.674		
적대감	긍정적 성품	-0.285	-.373	-5.372***	.001	16.485***	.190
	대인관계	-0.056	-.046	-0.619	.537		
	가족	-0.106	-.075	-1.140	.255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098	-.201	-2.732**	.007		
	긍정적 성품	-0.188	-.198	-2.889**	.004		
	대인관계	-0.204	-.135	-1.844	.066		
	가족	0.059	.034	0.518	.605		

\*\*  $p < .01$ , \*\*\*  $p < .001$

영향을 검증하고,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변인의 구성요인별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자존감의 구성요인이 4개, 정서조절곤란의 구성요인이 6개, 공격성의 구성요인이 4개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경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독립변수인 자존감의 구성요인이 종속변수인 공격성의 구성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여 유의한 변수를 도출하였다[표 3].

그 결과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에는 자존감의 모든 하위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분노감에는 긍정적 성품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 $\beta = -.373, p < .001$ ), 적대감에는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beta = -.201, p < .01$ )과 긍정적 성품( $\beta = -.198, p < .01$ )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과의 관계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분노감과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독립변인인 자존감이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매개변인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매개효과 검증에서 제외되었고, 분노감과 적대감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검증하였다[표 4].

그 결과, 분노감에는 충동통제곤란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beta = .648, p < .001$ ), 적대감에는 명료성의 부족( $\beta = .178, p < .05$ ), 전략적 접근 제한( $\beta = .168, p < .05$ )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정서조절곤란이 분노감과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	p	F	R <sup>2</sup>
분노감	충동통제곤란	0.594	.648	9.040***	<.001	38.547***	.452
	주의와 지각 부족	0.013	.022	0.440	.660		
	비수용성	-0.020	-.037	-0.599	.550		
	명료성의 부족	0.098	.058	0.949	.343		
	전략 접근 제한	-0.089	-.113	-1.674	.095		
	목표지향 어려움	0.080	.089	1.179	.239		
적대감	충동통제곤란	0.152	.133	1.583	.115	15.386***	.248
	주의와 지각 부족	0.009	.013	0.211	.833		
	비수용성	0.010	.014	0.192	.848		
	명료성의 부족	0.371	.178	2.466*	.014		
	전략 접근 제한	0.166	.168	2.135*	.034		
	목표지향 어려움	0.110	.098	1.105	.270		

\*  $p < .05$ , \*\*\*  $p < .001$

표 5. 긍정적 성품과 분노감의 관계에서 충동통제곤란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	p	F	R <sup>2</sup>
분노감	긍정적 성품	-0.308	-.404	-7.448***	<.001	55.479	.163
충동통제곤란	긍정적 성품	-0.420	-.504	-9.859***	<.001	97.201***	.254
분노감	긍정적 성품	-0.069	-.091	-1.785	.075	115.995	.450
	충동통제곤란	0.568	.620	12.162***	<.001		

\*\*\*  $p < .001$

5.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5.1 긍정적 성품과 분노감의 관계에서 충동통제곤란의 매개효과

분노감에 대해서는 긍정적 성품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매개변인에서는 충동통제곤란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긍정적 성품이 분노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충동통제곤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긍정적 성품이 분노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긍정적 성품은 분노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04, p < .001$ ). 2단계에서는 긍정적 성품이 매개변인인 충동통제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긍정적 성품은 충동통제곤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04, p < .001$ ). 그리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긍정적 성품과 매개변인인 충동통제곤란을 모두 투입하여 분노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긍정적 성품은

유의하지 않았고, 충동통제곤란만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620, p < .001$ ).

결과적으로 긍정적 성품은 분노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며, 충동통제곤란을 통하여 분노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충동통제곤란은 긍정적 성품과 분노감 사이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5.2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및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의 관계에서 명료성 부족의 매개효과

적대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긍정적 성품만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매개변인에서는 명료성 부족과 전략접근제한만이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긍정적 성품이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명료성 부족과 전략접근제한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명료성 부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긍정적 성품이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및

표 6.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및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의 관계에서 명료성 부족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	p	F	R <sup>2</sup>
적대감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121	-.249	-3.729***	<.001	31.092***	.180
	긍정적 성품	-0.214	-.225	-3.374**	.001		
명료성 부족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021	-.089	-1.331	.184	31.089***	.180
	긍정적 성품	-0.166	-.365	-5.461***	<.001		
적대감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108	-.223	-3.476**	.001	31.189***	.248
	긍정적 성품	-0.114	-.120	-1.778	.076		
	명료성 부족	0.604	.290	5.092***	<.001		

\*\* p<.01, \*\*\* p<.001

표 7.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의 관계에서 전략접근제한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	p	F	R <sup>2</sup>
적대감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121	-.249	-3.729***	<.001	31.092***	.180
	긍정적 성품	-0.214	-.225	-3.374**	.001		
전략접근제한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065	-.132	-2.130*	.034	59.203***	.294
	긍정적 성품	-0.436	-.454	-7.318***	<.001		
적대감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103	-.212	-3.251**	.001	29.267***	.237
	긍정적 성품	-0.092	-.096	-1.369	.172		
	전략접근제한	0.281	.285	4.604***	<.001		

\*\* p<.01, \*\*\* p<.001



객관적 능력( $\beta=-.249, p<.001$ )과 긍정적 성품( $\beta=-.225, p<.01$ )이 모두 적대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명료성 부족에 대해서 긍정적 성품만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65, p<.001$ ). 한편 3단계에서는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및 긍정적 성품과 매개변인인 명료성 부족을 함께 투입하여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명료성 부족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beta=.290, p<.001$ ), 사회적, 객관적 능력은 적대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223, p<.01$ ), 영향력의 크기는 1단계에 비해 감소하여( $\beta=-.249 \rightarrow .223$ )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적대감 사이에서 명료성 부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긍정적 성품은 적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은 직접적으로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이 명료성 부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적대감 사이에서 명료성 부족의 매개역할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긍정적 성품은 직접적으로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명료성 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료성 부족은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 사이를 완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 5.3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의 관계에서 전략접근제한의 매개효과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의 관계에서 전략접근제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1단계에서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긍정적 성품이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beta=-.249, p<.001$ )과 긍정적 성품( $\beta=-.225, p<.01$ )이 모두 적대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전략접근제한에 대해서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beta=-.132, p<.05$ )과 긍정적 성품( $\beta=-.454, p<.001$ ) 모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단계에서는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과 매개변수인 전략접근제한을 함께

투입하여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전략접근제한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beta=.285, p<.001$ ),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은 적대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212, p<.01$ ), 영향력의 크기는 1단계에 비해 감소하여( $\beta=-.249 \rightarrow .103$ )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적대감 사이에서 전략접근제한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긍정적 성품은 적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은 직접적으로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전략접근제한을 통한 매개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 전략접근제한은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적대감 사이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 성품은 직접적으로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전략접근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략접근제한은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 사이를 완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 V. 논의

본 연구는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존감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전반적 자존감 또는 자존감의 총합으로 평가하지 않고 특정 영역에 따른 만족도로 이해함으로써 전반적 자존감의 총합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고, 전반적 자존감의 높고 낮은 수준에 따른 공격성의 양상과 매개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자존감의 특정 영역에 따른 공격성과의 관계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모든 요인들은 신체적 공격성 및 언어적 공격성과는 관련이 없었고, 분노감에는 긍정적 성품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적대감에는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긍정적 성품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의 특정 영역 중 어떤 요인도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자존감과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의 관련이 없었던 결과와도 일치한다[4][8]. 전반적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특정 영역에 따른 공격성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자존감의 구체적인 특성과 공격성의 관계가 설명가능 하였다.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긍정적 성품과 같은 자존감이 분노감 및 적대감과 연관성을 살펴볼 때,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본질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분노감과 적대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능력과 가치감에 근거한 자존감은 공격성의 행동적 요소보다는 분노감과 같은 정서적 요인과 적대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이 전반적인 자존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공격성과의 관계를 파악했다면 본 연구는 자존감의 내용에 따라 공격성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존감의 특정 영역들 중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긍정적 성품만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고, 대인관계와 가족 요인은 공격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과 긍정적 성품을 구성하는 문항 수에 비해 대인관계 및 가족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수가 적은 척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이 두 하위 요인이 공격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대인관계 및 가족에 근거를 둔 자존감과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추후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정서조절곤란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 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공격성과 관계가 있으며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34].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충동통제곤란은 분노감에, 전략적 접근 제한은 적대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노감은 정서조절곤란의 정서적 요인과 관련이 있고, 적대감은 인지적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서경험을 조절하고 처리하

는데 어려움을 갖는 충동통제곤란과 사용가능한 정서 조절전략을 무엇인지 기억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을 겪는 전략적 접근제한,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과 연관이 있는 명료성의 부족은 공격성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조절의 어려움의 정도와 공격성과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들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정서조절의 어떤 구체적인 특성이 공격성과 연관이 있는 가를 밝혔다.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정서조절전략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정서조절곤란을 겪을수록 공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정서조절은 정신건강과 적응에 기여하지만 정서조절의 곤란은 자기 파괴적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충동통제곤란, 명료성 부족과 전략적 접근제한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자존감이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성품은 분노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충동조절곤란을 통해 분노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동통제곤란을 겪는 경우, 자신의 충동성을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명료성 부족은 사회적, 객관적 능력과 적대감 사이에서 매개 역할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긍정적 성품은 명료성 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접근제한은 사회적, 객관적 능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분매개를 하였고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 사이에서 전략적 접근제한은 완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역량에 대한 만족도가 크더라도 특정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대처행동이나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적대감과 같은 공격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의 부족은 적대감 지향의 인지적 양상을 초래하여,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며, 지각된 위협은 적대감과 같은 공격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35].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에서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능력과 가치감에 근거한 자존감은 공격성의 행동적 요소보다는 분노감과 같은 정서적 요인과 적대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자존감만으로는 공격성을 설명할 수 없고, 정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곤란의 각 구성요소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특정 영역의 자존감이 어떤 정서조절곤란 요인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였다. 개인의 역량과 관련한 자존감 영역인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서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전략의 부족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감과 적대감이 문제가 되어 심리치료가 요구될 때 자존감의 특정 영역과 정서조절곤란의 수준을 고려해서 치료목표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인들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져 사회적 바람직성의 편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추후에는 구조화된 면담 등을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공격성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개효과는 인과관계를 가정하므로 개인역량에 근거한 자존감이 정서조절곤란에 선행하고 그 결과 공격성의 위험이 증가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1] A. Dumais, A. D. Lesage, M. Alda, G. Rouleau, M. Dumont, N. Chawky, M. Roy, J. J. Mann, C.

Benkelfat, and G. Trecki, "Risk factors for suicide completion in major depression: A case-control study of impulsive and aggressive behaviors in m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62, No.11, pp.2116-2124, 2005.

- [2] R. F. Baumeister, L. Smart, and J. M. Boden,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Vol.103, No.1, pp.5-33, 1996.
- [3] C. Salmivalli,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6, No.4, pp.375-393, 2001.
- [4] B. Bushman, R. Baumeister, S. Thomaes, E. Ryu, S. Begeer, and S. West, "Looking again, and harder, for a link between low self-esteem and aggression," *J. of Personality*, Vol.77, No.2, pp.427-446, 2009.
- [5] D. Muller, B. J. Bushman, B. Subra, and E. Ceaux, "Are people more aggressive when they are worse off or better off than other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Vol.3, No.6, pp.754-759, 2012.
- [6] S. Konrath, B. J. Bushman, and W. K. Campbell, "Attenuating the link between threatened egotism and agg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Vol.17, No.11, pp.995-1001, 2006.
- [7] L. A. Kirkpatrick, C. E. Waugh, A. Valencia, and G. D. Webster, "The functional domain specificity of self-esteem and the differential prediction of aggress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2, No.5, pp.756-767, 2002.
- [8] 서수균, 권석만,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1권, 제4호, pp.809-826, 2002.
- [9] 김은희, 강승호, "자존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 공격성 간의 관계,” 교정연구, 제47권, 제6호, pp.119-143, 2010.
- [10] A. Shield and D. Cicchetti,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27, No.4, pp.381-395, 1998.
- [11]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2] C. Mruk,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self-esteem*, Springer, 2006.
- [13] 김민정, “자존감 2요인 모델에 대한 고찰,”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제35권, 제3호, pp.411-434, 2016.
- [14] 김순혜, “청소년의 자존감 결정요인: 자기-역량 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인간발달연구*, 제17권, 제4호, 2010.
- [15] J. Crocker, A. T. Brook, Y. Niiya, and M. Villacorta, “The pursuit of self-esteem: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self-regulation,” *J. of Personality*, Vol.74, No.6, pp.1749-1771, 2006.
- [16] A. Bandura,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Printice-Hall, 1973.
- [17] L. Berkowitz,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McGraw-Hill, Inc, 1993.
- [18] 한영주, 하창순,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805-814, 2016.
- [19] A. H. Buss, and M. Perry,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3, No.3, pp.452-459, 1992.
- [20] N. R. Crick, and J. K. Grotpeter,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66, No.3, pp.710-722, 1995.
- [21] A. Frodi, J. Macauley, and P. R. Thome,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Vol.84, No.4, pp.634-660, 1977.
- [22] 임지영, “여중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199-210, 2016.
- [23] R. Martin, D. Watson, and C. K. Wan, “A three-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 of Personality*, Vol.68, No.5, pp.869-897, 2000.
- [24] J. J. Gross, “Emotion regulation: Taking stock and moving forward,” *Emotion*, Vol.13, No.3, pp.359-365, 2013.
- [25] K. L. Gratz and L. Roemer,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Vol.26, No.1, pp.41-54, 2004.
- [26] T. Roberton, M. Daffern, and R. S. Buck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17, No.1, pp.72-82, 2012.
- [27] P. Velotti, J. Elison, and C. Garofalo, “Shame and aggression: Different trajectories and implicatio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19, No.4, pp.454-461, 2014.
- [28] J. P. Scott, D. DiLillo, R. C. Maldonado, and L. E. Watkins, “Negative urgenc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use: Associations with displace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Vol.41, No.5, pp.502-512, 2015.
- [29] A. Fossati, E. Acquarini, J. A. Feeney, S. Borroni, F. Grazioli, and L. E. Giarolli, “Alexithymia and attachment insecurities in impulsive aggression,”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Vol.11, No.2, pp.165-182, 2009.
- [30] A. M. Cohn, M. Jakupcak, L. A. Seibert, T. B.

Hildebrandt, and A. Zeichner,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in the association between men’s restrictive emotionality and use of physical aggression,”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Vol.11, No.1, pp.53-64, 2010.

- [31]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2권, 제1호, pp.271-298, 2013.
- [32] 조용래, “정서조절곤란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6권, 제4호, pp.1015-1038, 2007.
- [33]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34] T. N. Sullivan, S. W. Helms, W. Kliewer, and K. L. Goodman, “Associations between sadness and anger regulation coping, emotional expression, an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Development*, Vol.19, No.1, pp.30-51, 2010.
- [35] P. G. Nestor, “Mental disorder and violence: personality dimensions and clinical featur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59, No.12, pp.1973-1978, 2002.

저 자 소 개

고 진 경(Jinkyung Goh)

정회원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영문학사)
- 1987년 8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석사)
- 1994년 9월 : 독일뮌스터대학교 심리학과(Psy.-Dip.)
- 2007년 2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임상심리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숭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정신병리, 인지행동치료, 임상심리